



에코라벨마크, EU시장 진출 필수
 소비자 환경관심 증폭, 마케팅 차원에서 획득 바람직

현재까지 EU에서 에코라벨(Eco-label)마크를 부여받은 채 EU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182개에 달하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수개월내에 18개의 품목에 대해 추가로 이 마크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져 점차 에코라벨에 대한 EU업체 및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난 92년 제정된 EU 에코라벨제도에 의거해 현재까지 행해진 허가건수는 40건으로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화란, 포

르투갈, 스웨덴, 영국 등 9개 회원국의 22개 제조업체와 182개의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허가가 행해졌다.

환경라벨 부여기준이 마련돼 있는 품목군은 12개로 세탁기, 식기세척기, 토양개선제, 휴지, 주방용지, 세척제, 전구, 실내용 페인트, 베드린넨과 T셔츠, 냉동고, 복사용지인데 현재 집행위는 이외에도 12개 품목군(신발, Cat-litter, 침대매트리스, 소비재용 배터리, 바닥청소제품, 위생청소기, 식기세척기용 세척제, 샴푸, 고무백, 가공종이제품, 개인용 컴퓨터, 섬유제품)에 대한 부여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집행위는 지난 96년말부터 에코라벨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 제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단계적 라벨제도 도입, 즉 환경보호측면에서의 당해제품의 등급을 그래픽으로 표시

○ 민간차원의 독립적인 유럽 에코라벨기구 창설. 이 기구는 회원국 관할당국과의 협력하에 각기 다른 상품군별로 부여기준을 개발

○ EU제도와 국별 제고간의 보완성 제고

○ 에코라벨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연례수수료를 최대 4만 ECU 이내로 유지하며 EU내 판매물량과 별도로 수수료 책정, 현행 제도에 의할 경우 지불수수료는 판매물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과 개도국 제조업자에 대해 수수료 인하.

일반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이 마크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또 집행위 자체도 마크부여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최소한 마크부여 대상품목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EU마케팅차원에서라도 이 마크 획득이 바람직한 실정이다.

노르웨이社, 한국대상 구매희망

플라스틱 소재·원료 등

노르웨이의 Kraft Chemicals사가 플라스틱 소재 및 원료 공급업체를 모색하고 있다.

이 업체의 주요고객은 플라스틱, 고무, 폴리우렌탄 제품, 페인트, 니스, 잉크 제조업체, 도로 건설업체, 종이 및 펄프 제조업체 등인데 이들과의 튼튼한 네트워크 구축, 엄격한 품질관리 및 마케팅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구미 선진국 소재 약 45개의 제조수출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 수입희망품목

-Low & high density polyethylene for film extrusion, calandring

-S-PVC with K-value 67, 68, 70 & K-57 for film

-Unsaturated Polyester according to Binolitt 1073×2 from DSM

-Epoxy for production powder coating products

-PET for infection blow moulding of bottles

-Polyols for production of polyurethane

-MDI/TDI for the production of Polyurethane foam

중국, 수입상품에 원산지 등 표기 강화

생산업체·수입상·판매상, 중문·외국어 명기의무화

중국 국가기술감독국에서는 최근 수입상품 표기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수입상품은 반드시 원산지, 수입상, 판매상을 명기하되 중국내 등기된 회사명칭과 주소를 기재토록 했다.

새로 발표한 '품질표시표주규정'에 따르면 상품표기의 문자는 중문으로 하되 한자병음과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외국어는 중문보다 크게 표시해서는 안된다.

상품표기는 생산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품질검사 허가증명이 있어야 한다.

상품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 규격, 등급, 수량, 주요성분과 함량, 기타 기술 관련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기한을 요하는 상품은 생산일자



안전사용기한 및 유효기간을 상품이나 포장지에 인쇄해야 한다.

일자의 표기방법은 국가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년, 월, 일'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그밖에 위험성이 있는 상품 및 파손되기 쉬운 상품은 경고 표식을 하거나 중문으로 경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상품표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품은 국가기술감독국에서 상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판매중지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플라스틱제품생산 급속확대

수요 2000년 1천만 전망, 수급균형 이룰 듯

중국 화공보에 따르면 중국의 플라스틱제품 시장은 향후 2000년까지 지속적인 수요증가세를 보여 전자재, 포장, 일용품 및 농업용 플라스틱제품 등 각 분야에서 수요량이 800만~1천만 t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포장용

시멘트, 식량, 화학비료, 요식업 등에 소요되는 포장용재료(플라스틱 백 등)의 수요량은 2000년에 70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플라스틱 제품 중 가장 수요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 몰드 수입의존도 커

수요 증가 꾸준 한국산 가격경쟁력 있어 진출 유망

베네수엘라의 고무·플라스틱 몰드를 생산하는 업체는 매우 영세하며, 업체수도 3~4개사에

불과하다. 품질은 보통수준이나 가격이 수입제에 비해 30%이상 비싸다.

연간 몰드 생산량은 150만~200만달러선으로 추산돼 국내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수요의 8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약 1,200만달러 수준이며, 주로 이탈리아 및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몰드가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탈리아 미국산 몰드는 품질이 우수하며 비교적 저가에 공급하므로 이들 국가의 몰드가 전체 시장의 40%에 이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 단순 공산품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플라스틱 가정용품, 장난감, 화장품 용기, 문구류 등을 찍어내는 고무 및 플라스틱 몰드는 비교적 저렴한 투자로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므로 몰드의 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의 몰드 수출은 95년 약 30만달러, 96년 약 20만달러, 97년 상반기 약 20만달러로 실적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도 연도별로 일정치 않아 정상적인 수출이라기보다는 재수출 등인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의 몰드수입은 95년부터 매년 약 1천만달러 규모의 수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연말에는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및 유럽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베네수엘라는 수입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몰드의 수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입실적 (단위 : US\$)

국 별	1995	1996	97. 1~6
이탈리아	3,550	2,672	1,183
미 국	1,952	1,845	608
캐 나 다	843	327	658
기 타	3,968	5,338	640
총 계	10,315	10,183	3,091

몰드의 경우 수입관세 10%이며, 관세산정 기준은 CIF원칙, 송장가격이다. 송장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시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참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와는 별도로 관세납부 후 가격(CIF 가격 + 수입관세)의 16.5%에 해당하는 판매세(부가세에 해당)를 납부해야 하며, 이 외에 통관수수료와 제세로 수입가격의 1~2%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나, 중남미인은 전통적으로 기계류는 미국 및 유럽으로 수입해왔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우리업체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으므로 우리업체의 가격조건이 좋을 경우 우리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 Optiplas

Parque Comercial El Avila Calle Uno Nivel C.5, Urb. Terrazas del Avila
Tel:58-2-243-6374 Fax:58-2-243-7478

Contact : Mr. Michael Silveira

○ Flexohogar

Urb. Industrial Guaycay Calle F. Edif. Guaycay Local #3, Las Minas de Baruta
Tel:58-2-945-9979 Fax:58-2-941-7430

Contact : Mr. Ricardo Charr

○ Alpa Casa

Calle El Rio, Galpon #8, Final Av. Las Plamas, Caracas
Tel:58-2-234-1148 Fax:58-2-235-0551

Contact : Mr. Salomon Ben-Ari

○ Uni Plast

Av. Intercomunal Guarenas Guatire Calle La Mura Zona Ind. El Marquez Guatire, Edo. Miranda
Tel:58-36-44-1831 Fax:58-36-44-3734

Contact : Mr. Carmen de Padilla

○ Palefplast. C.A.

Parque Central Edif. Tajamar Piso 1, Apto. 1-E, Caracas
Tel : 58-2-577-1392

Fax : 58-2-577-1784

Contact : Mr. Ivan Daroi Yuny

日 유화업계, PP증산 잇달아

염화비닐 대체 포장재로 쓰여

일본 석유화학업체들이 잇따라 범용 합성수지인 폴리프로필렌(PP)의 증산에 나서고 있다. 유화업계 전반의 설비과잉에도 불구하고 폴리프로필렌은 자동차용 부품소재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쓰이(三井)석유화학 등 3개사가 공동 설립한 그랜드포리머시는 오사카의 다카이시(高石)공장과 자바현의 이치하라(市原)공장 등 2개 공장에 10억엔을 투자, 생산능력을 각각 2만2천 정도 늘렸다.



이 회사는 이번 증설에 따라 연간 70만의 생산능력을 갖춰 폴리프로필렌 최대생산업체인 포리켄의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동종업계 3위인 데미쓰(出光) 석유화학은 자바공장의 생산설비를 개보수,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 30만에서 37만규모로 늘렸다. 또 일본 폴리올레핀은 96년 수요감소로 한때 가동을 중단했던 오이타공장의 설비를 97년 1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각 업체들의 설비증설에 따라 늘어난 공급량은 지난 1년사이에만 모두 18만 5천에 달한다.

유화업계가 이처럼 폴리프로필렌 증산에 앞다퉀 나서는 것은 자동차용 부품소재로의 수요 증가 외에도 환경문제 등장에 따라 폴리프로필렌이 각종 포장재로 쓰여온 염화비닐 대체용으로 널리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日, PVC 수출 크게 증가

대중(中) 수출 호조에 따라

일본의 PVC수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7년 9월중 수출량은 총 5만7천2백톤으로 97년 들어 처음으로 5만톤대를 돌파했던 지난 97년 5월의 5만6백53톤마저 웃도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지난 97년 1월부터의 수출누계도 40만톤대를 돌파해 96년보다 2개월 앞당겨 40만톤대를 달성했다.

이같은 수출호조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개속 호조로 추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의 PVC업체들은 내수의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에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PVC수출물량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최근 수년동안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95년 실적을 보면 94년 대비 30.4% 증가한 41만8천8백21톤으로 40만톤대를 가볍게 돌파했으며, 96년에도 13.9% 늘어난 47만7천82톤을 기록했다.

日, 홋카이도공업기술연구소

썩는 플라스틱 제조 세균 발견

일본 통산성의 관련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 홋카이도공업기술연구소는 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도카이 대학과 공동으로 기존의 방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세균을 최근 발견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세균에 비해 폭넓은 온도대에서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수월하며 해조류에 들어있는 성분을 먹이로 줄 수 있어 그만큼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흙이나 물속에서 분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요즘 환경친화적인 소재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히드록시부틸레이트(PHB)를 체내에서 만들어 축적하는 성질을 지닌 세균 '데레야 마리나 L-2', 약품 등을 사용해 세균으로부터 PHB를 추출한다.

기존의 PHB를 만드는 세균은 30~35도로 온도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배양될 수 없었지만 이번에 발견된 세균은 0~40도 범위에서 배양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해조류에 포함된 알긴산



을 먹이로 삼고 있어 원료를 거의 공짜로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구미에서는 PET병이나 쓰레기봉투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조비용이 일반플라스틱에 비해 10배나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日, PET용기 재생법 개발 월 20톤 규모 시작, 연내 80톤까지 증가

일본의 山本制作所가 사용되어진 PET용기를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생하는 사출성형법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생산량을 월 20톤 규모로 시작해

연내에 80톤으로 증가시키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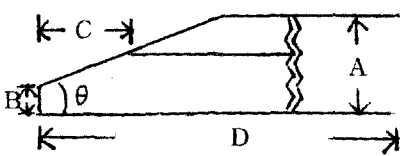
이 회사는 사용하는 수지원료의 40%를 재생 PET수지로 조달하고 있어 원료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

제품화해서 만들어 낸 첫 제품은 목용탕 의자로 생산규모는 월 4만개이고 액 20톤의 수지를 사용한다. 또한 연내 4대의 사출성형기를 새로 도입, 부업에서 쓰이는 세탁용바구니 등의 제조도 시작할 예정이다.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면 재생 PET수지 사용량은 월 8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설계에서 금형제조, 사출성형, 조립까지 할 수 있는 플라스틱메이커로 100엔 쇼핑용품을 중심으로 매상고를 순조롭게 신장시키고 있다. [ko]

독타 브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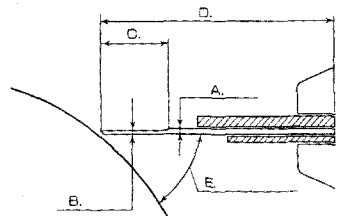


◆규격 및 종류
두께(A): 0.39mm, 0.55mm (표준), 1.00mm
폭(D): 30-70mm (50mm가 표준)
날의 두께(B): 0.05mm
날의 폭(C): 0.6mm
각도: 13도 재질: 폴리에스터
길이: 75m/reel (표준의 경우)

플라스틱 독타 브레이드(영국 ESTERLAM사 제품)
플렉소 인쇄, 그라비아 인쇄, 코팅, 라미네이션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단보루 인쇄용 플렉소 인쇄, 산화철 코팅, 접착제 코팅등에 매우 좋다

주요한 특징

1. 마모가 적어 동판이나 아니록스롤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재가공(부식,도금)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2. 안전하여 손을 베는 일이 없다.
3. 재질이 유연하고 취급이 간단하여 폭이 넓은 기계에 적합하다.
4. 내용제성이 뛰어나다.
5. 물에의 적용이 뛰어나다.



◆규격 및 종류
두께(A): 0.15mm (표준), 0.20mm, 0.25mm
폭(D): 30-70mm (50mm가 표준)
날의 두께(B): 0.07mm (표준)
날의 폭(C): 1.20mm (표준)
길이: 100m/reel

스틸 독타 브레이드(스웨덴 MGS사 제품)

주요한 특징

1. 정선된 스웨덴강 사용
2. 고정도의 날연마
3. 물 적용성이 좋은 특수날 형상
4. 긴 수명

수입 판매원: 에림상사 TEL:0343-24-4505 FAX:0343-23-8169